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2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34)	봉헌 (221)	성체 (168)	파견 (141)
---------	----------	----------	----------	----------

제1독서 | 사도 14,21-27

화답송 | 시편 145(144),8-9,10-11,12-13ㄱㄴ(◎ 1 참조)

◎ 저의 임금인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 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 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 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 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 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 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제2독서 | 묵시 21,1-5ㄴ

복음환호송 |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 음 | 요한 13,31-33ㄱ,34-35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5/19	이 마틸다	이 바오로	박 다니엘
5/26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6/2	유 요한	이 바오로	박 다니엘
6/9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60	\$	\$3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27	김 마론/ 김 헬레나	6/1	이 요한/ 이 마틸다
5/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8	유 요한/ 유 마리아
5/11	손 아놀드/ 손 쟈마	6/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5/1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6/22	홍 마르코/ 홍 아녜스
5/25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6/29	김 요아킴/ 고 안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평창 올림픽

-곽윤기 스테파노 | 쇼트트랙선수-

선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림픽은 꿈의 무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니...! 드디어 기다리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던 올림픽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야만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첫 목표는 선발전의 통과였습니다. 주위의 몇몇 분들도 ‘조금 늦은 거 아닐까? 나이가 많아서...’ 라고 이야기 했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국가대표로 선발되리라는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어찌지? 사람들의 염려를 무릅쓰고 출전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찌지?’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씩 커질 때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올림픽 이후 부상을 이겨낼 때 체계 동기 부여가 되었던 올림픽이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어쩌나 간절했는지, 어느 날부터 연습장에 들어갈 때 얼음에 손을 대고 성호경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는 건 아닐까?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자격은 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느님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저를 조금 뻔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느님, 저는 지금까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번만은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당신께 저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스스로 잘해서 하느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도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6월 6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원회의는 오늘(5월 19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목요일 오후 7:3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모의 밤 행사(5월 20일 저녁 7시)

오는 20일 성모성월 행사는 성당 안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사 때 성모님께 드리는 글이나 시를 나누고 싶은 분을 환영합니다.

다. 또 성모님께 드릴 꽃은 개인이 준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팀에 선발되었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에 다시 참가하게 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올림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선수촌 안의 작은 기도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것 그리고 연락만 하면 언제든 달려와 주시는 신부님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올림픽 전에도 신부님은 늘 말씀 하셨습니다. ‘올림픽 가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줘요. 미사 봉헌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어요.’

선발전을 마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평창올림픽은 아쉽게도 눈에 보이는 멋진 결과는 없었습니다. 멋지게 준결승전을 치르고 결승전에서 좋은 결과를 위해 달리던 중 후배 선수가 넘어져 입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저는 하느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뻔뻔함이 생겼고, 신부님과 둘이서만 드린 미사의 추억도 생겼고, 메달이 없어도 ‘고생했다. 자랑스러웠다.’ 말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저의 올림픽은 너무도 행복한 올림픽이었습니다.

다시 올림픽을 도전한다고 하면, ‘더 늦은 나이라고, 불가능할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성호경을 긋고 얼음판을 나서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 함께 해주세요.’